오늘의 주도주 | judoju.kr

2026.11.10 (화) 07:24 생성

장전 브리핑 · 개장 전 필수 체크

뉴욕 3대지수 급반등·필반 6.9%↑…코스피 반도체 반등 기대

📊 글로벌 마감 지표

S&P500 7,549.94 (+2.35%)	나스닥 25,253 (+2.74%)	다우 52,390 (+2.15%)	필라반도체 10,034 (+6.85%)
WTI 86.38 (+0.00%)	금 4,149.50 (+0.00%)	비트코인 74,940 (+0.48%)	원/달러 1,340.86 (-1.14%)
달러인덱스 101.68 (-0.00%)	영국FTSE 10,783 (+1.02%)	독일DAX 26,267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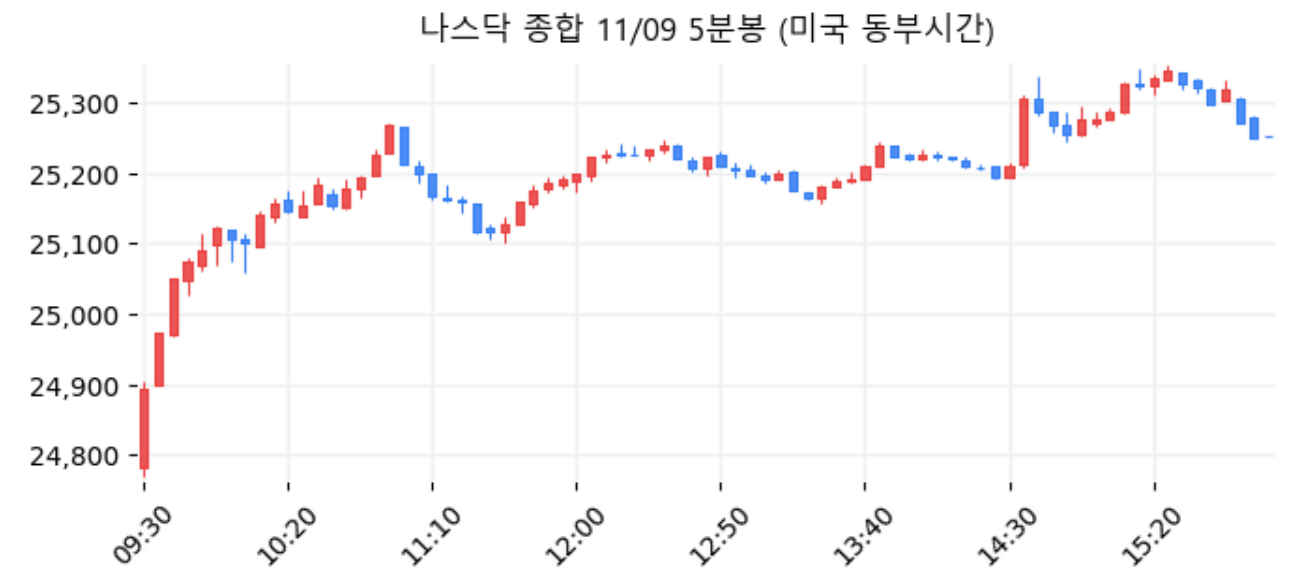
🌎 미국 시장 브리핑

11/9(월) 미국장 마감 · 일봉 3개월(이평 20·60·120, RSI) + 정규장 5분봉(미국 동부시간, 점선 = 전일 종가) · **EWY·KORU 야간구간** = 한국 18:00(미국 프리장 시작)~06:00 등락, 코스피 야간선물 대용 (지난 1년 다음 날 한국 대형주 시가 갭과 상관 0.77·방향 78%, 괄호 안 일간 등락은 그 날 한국 정규장이 섞여 더 큼)

나스닥 종합 25,253 (+2.74%)

RSI 42





S&P500 7,550 (+2.35%)

RSI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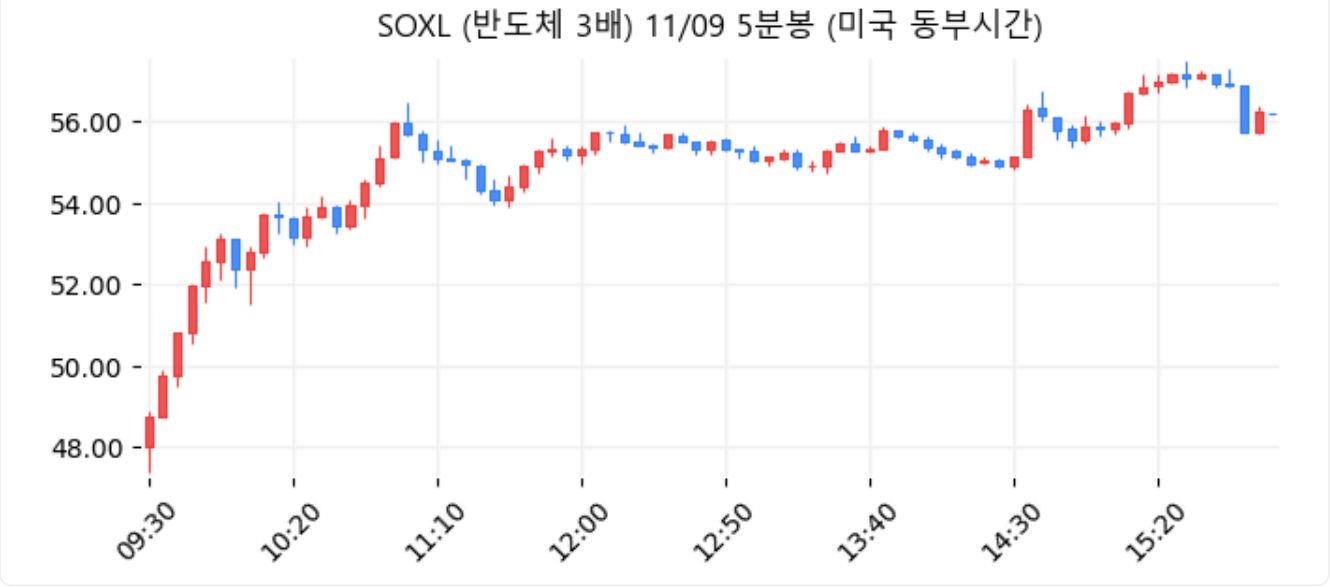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반도체 **10,034 (+6.85%)** RSI 40



SOXL (반도체 3배) **$56.20 (+22.25%)** RSI 35





EWY (MSCI 한국) **$142.10 (+3.72%)** RSI 39

야간구간(18:00~) **+5.81%**





KORU (한국 3배) **$7.69 (+11.29%)** RSI 34

야간구간(18:00~) **+20.16%**



WTI 유가 **$86.38 (-4.90%)** RSI 37



금 **$4,149.5 (+1.83%)** RSI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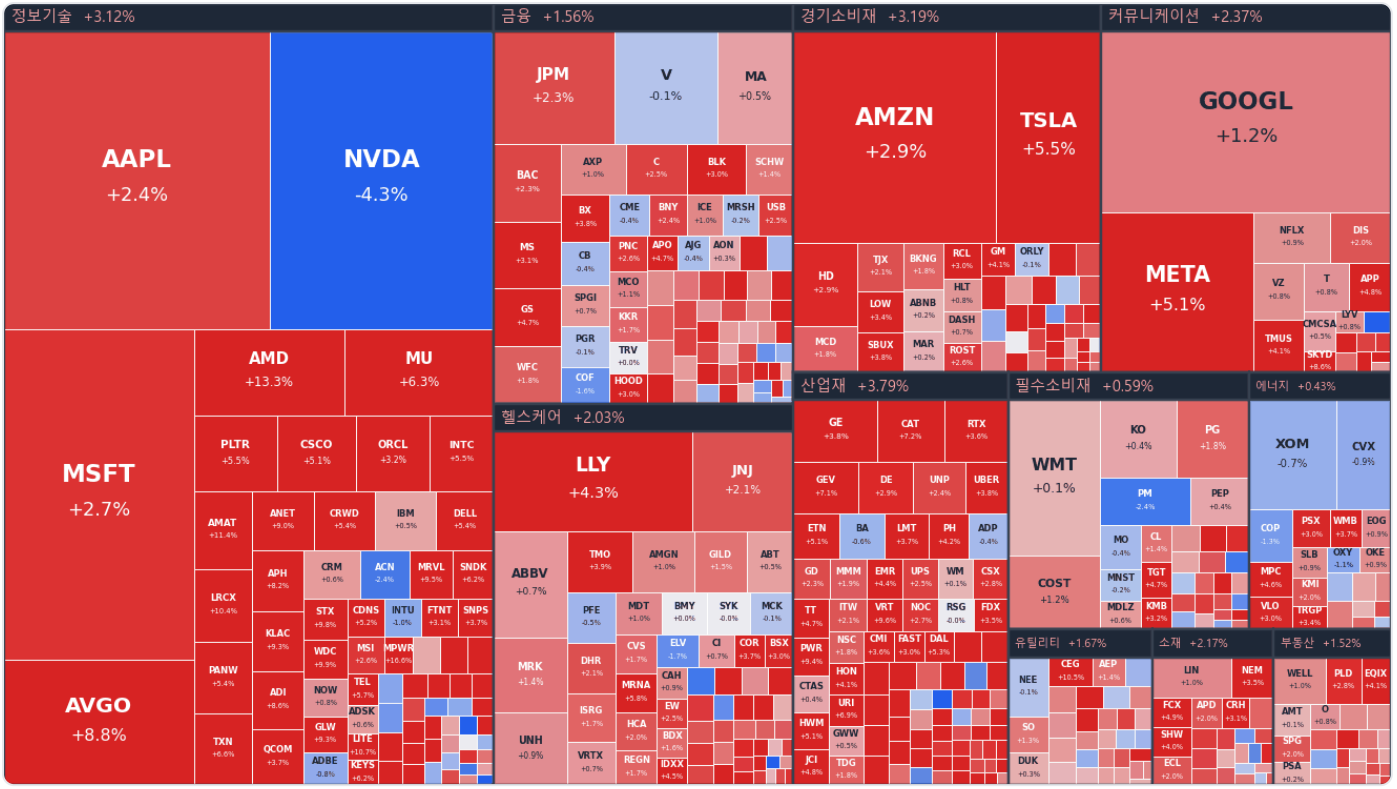
미국채 10년 금리 **4.864% (+0.10% · +0.5bp)** RSI 38


미국채 10년 금리 일봉 (3개월)
MA20
MA60
MA120
5.300
5.200
5.100
5.000
4.900
4.800
4.700
RSI
70
30
37
Aug 13
Aug 27
Sep 11
Sep 25
Oct 09
Oct 23
Nov 06

미국채 10년 금리 11/09 5분봉 (미국 동부시간)
4.880
4.870
4.860
4.850
4.840
09:30
10:20
11:10
12:00
12:50
13:40
14:30

🗺 업종 히트맵 (S&P500)

네모 크기 = 시가총액 · 색 = 등락률(빨강 상승, 파랑 하락) · 상승 413 / 하락 76종목



산업재 +3.79% | 경기소비재 +3.19% | 정보기술 +3.12% | 커뮤니케이션 +2.37% | 소재 +2.17% | 헬스케어 +2.03%

유틸리티 +1.67% | 금융 +1.56% | 부동산 +1.52% | 필수소비재 +0.59% | 에너지 +0.43%

▲ 상승 상위: COHR +16.8% · MPWR +16.6% · AMD +13.3% · TER +12.7% · FLEX +12.0%

▼ 하락 상위: FSLR -4.7% · NVDA -4.3% · TTWO -3.5% · AKAM -3.4% · AXON -3.1%

🏆 미국 주도주 TOP 10

11/9(월) 미국장 마감 · 거래대금 상위 100 중 +3% 이상 59종목을 국내 주도주 공식(수급 제외)으로 순위

순위	종목	등락률	거래대금	시가총액	52주 고가 대비
1	**AMD** AMD	+13.26%	$25.9B	$834.1B	-22.8%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6.25%	$23.4B	$829.5B	-41.6%
3	**브로드컴** AVGO	+8.78%	$11.7B	$1.53T	-35.5%
4	**테슬라** TSLA	+5.54%	$13.8B	$1.49T	-24.2%
5	**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 META	+5.12%	$12.3B	$1.64T	-17.8%
6	**스페이스X** SPCX	+5.81%	$14.6B	$1.93T	-37.0%
7	**일라이 릴리** LLY	+4.28%	$5.7B	$1.33T	-2.8%
8	**TSMC(ADR)** TSM	+3.51%	$6.1B	$2.02T	-20.3%
9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 MPWR	+16.60%	$2.3B	$67.7B	-19.0%
10	**샌디스크** SNDK	+6.16%	$12.3B	$126.1B	-62.3%

#1 AMD AMD NASDAQ $508.58 (+13.26%)

거래대금 **$25.9B** 약 34.8조원 (전체 2위) 시가총액 **$834.1B** 52주 고가 대비 **-22.8%** 업종 **정보기술**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NASDAQ $733.15 (+6.25%)

거래대금 **$23.4B** 약 31.4조원 (전체 3위) 시가총액 **$829.5B** 52주 고가 대비 **-41.6%** 업종 **정보기술**



#3 브로드컴 AVGO NASDAQ $319.48 (+8.78%)

거래대금 **$11.7B** 약 15.7조원 (전체 11위) 시가총액 **$1.53T** 52주 고가 대비 **-35.5%** 업종 **정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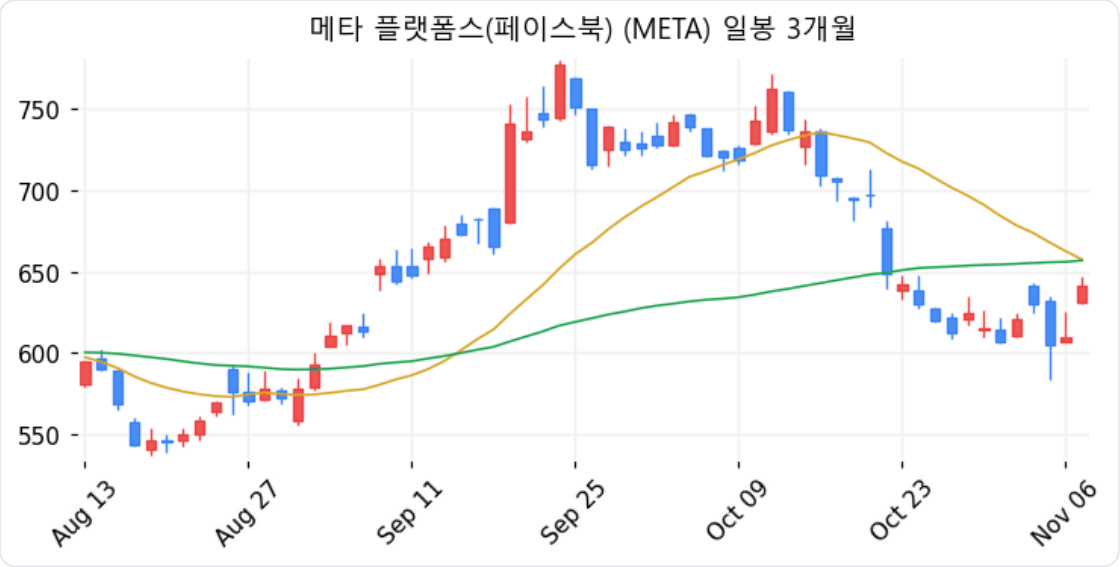
#4 테슬라 TSLA NASDAQ $378.05 (+5.54%)

거래대금 **$13.8B** 약 18.5조원 (전체 7위) 시가총액 **$1.49T** 52주 고가 대비 **-24.2%** 업종 **경기소비재**



#5 **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 META NASDAQ **$641.37 (+5.12%)**

거래대금 **$12.3B** 약 16.5조원 (전체 10위) 시가총액 **$1.64T** 52주 고가 대비 **-17.8%** 업종 **커뮤니케이션**



#6 **스페이스X** SPCX NASDAQ **$142.07 (+5.81%)**

거래대금 **$14.6B** 약 19.6조원 (전체 5위) 시가총액 **$1.93T** 52주 고가 대비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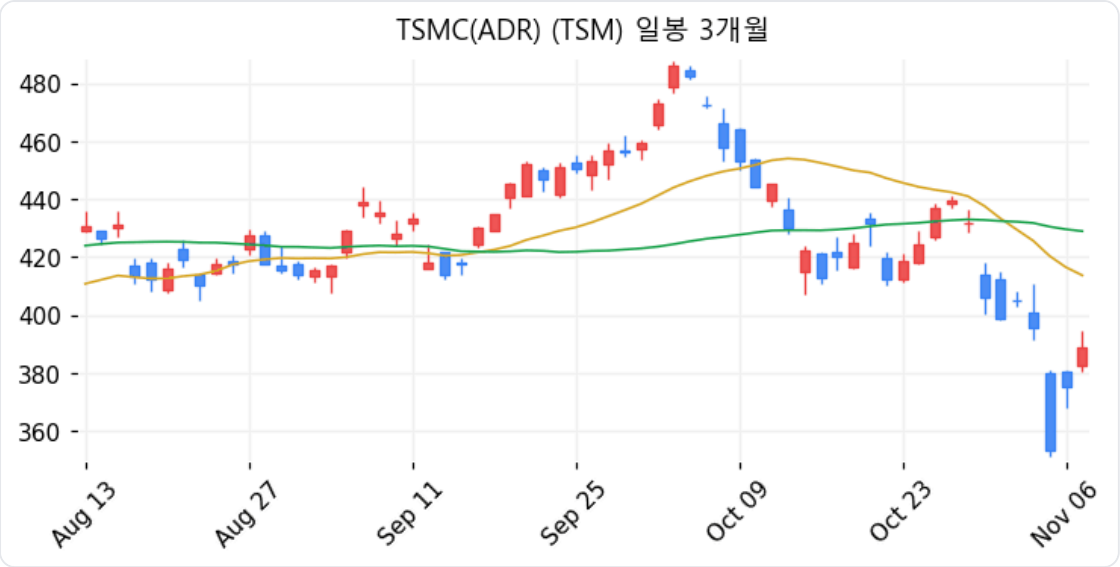
#7 일라이 릴리 LLY NYSE $1,411.95 (+4.28%)

거래대금 **$5.7B** 약 7.7조원 (전체 16위) 시가총액 **$1.33T** 52주 고가 대비 **-2.8%** 업종 **헬스케어**



#8 TSMC(ADR) TSM NYSE $388.62 (+3.51%)

거래대금 **$6.1B** 약 8.1조원 (전체 15위) 시가총액 **$2.02T** 52주 고가 대비 **-20.3%** 업종 **정보기술**



#9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 MPWR NASDAQ $1,388.05 (+16.60%)

거래대금 **$2.3B** 약 3.1조원 (전체 46위) 시가총액 **$67.7B** 52주 고가 대비 **-19.0%** 업종 **정보기술**



#10 샌디스크 SNDK NASDAQ $886.51 (+6.16%)

거래대금 **$12.3B** 약 16.5조원 (전체 9위) 시가총액 **$126.1B** 52주 고가 대비 **-62.3%** 업종 **정보기술**


샌디스크 (SNDK) 일봉 3개월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Aug 13
Aug 27
Sep 11
Sep 25
Oct 09
Oct 23
Nov 06

🔥 핵심 이슈

1 뉴욕증시 급반등·필반 6.86% 폭등

유가 급락과 AI주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S&P500 +2.35%, 나스닥 +2.74%,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86% 급등했다. 코스피 야간선물도 5.7% 급등하며 국내 반도체·기술주 반등에 강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뉴욕증시, AI주 저가매수에 반등…엔비디아만 4%대 급락… 유가 하락에 美 증시 반등… 필반지수 6.9% 상승…

2 엔비디아 나홀로 4%대 급락

젠슨 황 CEO의 불륜 스캔들 인정 여파로 엔비디아는 반도체 전반 급등 속에서도 4.27% 급락했다. 국내 HBM 공급 관련 K-소부장 업종의 단기 불확실성 및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증설 계획에 대한 시장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젠슨 황 불륜 의혹'에 엔비디아 한때 8%대…… 엔비디아 4%대 나홀로 급락…뉴욕증시, AI주 저가매수에 반등(종합)…

3 ASML·AMD 등 반도체 장비주 폭등

AMD +13%, 마이크론 +6%, ASML·KLA 등 반도체 장비주가 일제히 급등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 국내 반도체 장비주(주성엔지니어링 등)와 소부장 종목군에 긍정적 모멘텀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ASML부터 KLA까지 폭등랠리…반도체 장비주에 무슨 일?… [속보] AMD 13% 폭등·마이크론 6% 상승…엔비디아만 4% 급락, 뉴욕증시……

4 국제유가 급락·이란 긴장 완화

트럼프 발언 등에 따른 이란 긴장 완화 기대감으로 WTI가 5% 급락하며 글로벌 증시 반등의 핵심 촉매 역할을 했다. 에너지 비용 하락은 제조업·항공·화학 업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나, 정유·에너지 관련주에는 부담이다.

美 증시, 유가 급락에 3대 지수 폭등…엔비디아만 '나홀로 추락'… 트럼프 발언에 국제 유가 급락, 이란 긴장 완화 기대감 증폭…

5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이 1340.86원으로 1.14% 하락(원화 강세)하며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BofA가 '달러 매도·원화 매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가 오늘 코스피 반등의 핵심 변수다.

반도체주 폭락에 급등했던 원·달러…다음은 美연준 금리 향방 촉각… [N2 포커스] 美 블루웨이브에 환율 출렁…달러 언제 사고 팔까…

6 미 전력·AI 인프라주 급등

블룸에너지 +12%, 밥콕 +16% 등 미국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급등하며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기대감을 재확인했다. 국내 전력 인프라·데이터센터 관련주(한화 계열, 클라우드·AI 관련주)에 수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전력 인프라주 폭발…블룸에너지 12% 급등, 밥콕은 16% 뛰었다… "AI, 실적과 수요 전혀 문제없다, 시장이 못 믿는 건 금융"…

7 코스피 5000선 턱걸이·외국인 7연속 매도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 7거래일 연속 순매도 속에 5019에 마감하며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늘 뉴욕 급반등 효과로 반등이 기대되나, 외국인 매도세 지속 여부와 증안펀드 투입 논의 등 수급 변수를 주시해야 한다.

증시 오늘 '핫이슈'…"왜 한국은 '증안펀드' 카드 꺼내들지 않나"… 코스피 5000선 '턱걸이'…외국인 매도에 증시 반등 동력 실종…

8 양자컴퓨팅주 동반 폭등

리게티 +10%, 아이온큐 +8% 등 양자컴퓨팅 관련주가 동반 급등하며 차세대 기술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국내 양자컴퓨팅·미래기술 테마주에도 단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어 주목된다.

리게티 10% 뛰고 아이온큐 8% 치솟고…양자 컴퓨팅주 동반 폭등…

9 반대매매 유예·정부 증시 안정 조치

금융당국이 담보 비율 140% 완화와 반대매매 유예 신청을 허용하는 증시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단기적으로 반대매매 충격을 완충할 수 있으나, 근본적 수급 개선 여부는 미지수로 시장의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금융당국 증시 안정 조치에도 코스피 하락...AI 투자 불안 지속... 반대매매 '안전판' 가동...140% 족쇄 풀린 첫날 유예신청 쇄도...

10 코스닥 630선 추락·이틀째 약세

코스닥은 계엄 사태보다 3배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630선으로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종목 약세가 지속됐으나, 오늘 미국 기술주 급반등에 따른 반등 여부가 주목된다.

코스닥, 계엄 때보다 3배 더 빠졌다...2년 전으로 돌아가 630선... 코스닥, 약보합에 640선 밑으로...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등 하락...

💡 오늘의 관전 포인트

오늘 코스피는 뉴욕 3대지수 2%대 급반등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86% 폭등, 야간선물 5.7% 급등을 반영해 강한 반등 출발이 예상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와 ASML·KLA 급등의 수혜를 받는 국내 반도체 장비·소부장주(주성엔지니어링, 피에스케이 등)에 집중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엔비디아의 나홀로 4%대 급락과 젠슨 황 리스크가 HBM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모멘텀 훼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외국인의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이 오늘 반전될지 여부,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미국 CPI 지표가 연준 금리 경로에 미치는 영향도 오후 장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